

내레이션에 귀 기울이며 영상을 들여다본다. 내레이션 형태로 전달되는 텍스트는 관람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위치한 가상의 인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영상으로 펼쳐지는 사진 속 공간을 의인화한 서술, 간간히 등장하는 인물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정련된 사유가 돋보이는 텍스트, 조곤조곤한 어조의 내레이션, 영상화를 통해 미세한 운동성을 획득하는 공간 사진과 인물 사진, 미니멀리즘적이면서도 공감각을 지닌 사운드, 이 각기 다른 요소들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다층성은 작품 속 내레이션의 한 대목처럼 ‘공간, 사물, 신체가 닮아가는’ 어떤 오묘를 빚어내는데, 이때 작품이 응시하는 지점은 새로이 ‘드로잉’하는 것과 이미 ‘설계’된 것이 중첩된 어떤 지점에 놓인 것처럼 절묘하다.

혹자에게는 작품의 배경이 친숙한 공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작품과 마주한다면 이미 잘 아는 공간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다채로운 시청각적 요소들의 만남과 엇갈림으로 이루어진 이 복잡다단한 작품을 통해 ‘보는 것(to see)’은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to be seen)’을 넘어서므로.